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설치된 '체온측정기구'를 사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고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3.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내일부터 수도권은 2주간 방역 4단계 조치가 취해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18일 주일과 25일 주일은 부득이 오전 11시에 대면예배(최소인원-방송실, 재정부, 한존직)와 영상예배(유튜브)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주 토요일(7/17) 청소담당은 카자흐스탄 목장(권용기 집사)입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7/18) 주일간식담당은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6. 7월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반격>, <헤아려 본 기쁨>, <일상의 성화> 이상 3권입니다. 대여하셔서 꼭 일독을 권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7월 11일	7월 18일	7월 25일	8월 1일
예배기도(2부)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신태식 장로	서동운 장로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헝시바목장 (김금옥 권사)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1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권용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원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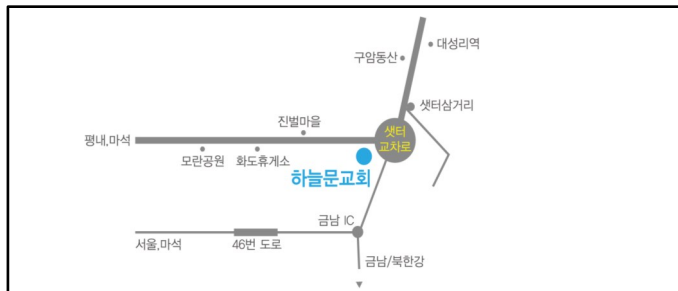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93장(통 447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유종열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히 4:14-16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은혜의 자리로’	김전희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다같이
*축도	김전희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13:1-5 ‘영적 권위란’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55)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어린 시절 이 맘 때면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먹거리며 볼거리 등 교회가 최고였습니다. 교회에는 다른 곳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악기가 있었고, 간식이 있었으며, 다양한 놀이문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뛰어놀 또래가 있었고, 작은 것에도 칭찬해주는 친절함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과 교회는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시설과 문화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모든 즐거운 것과 귀한 것들이 세상에 훨씬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시 84:1) 라는 시편 시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살아 있는 영혼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도 주의 장막과 그가 거하시는 전을 사모할까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샘을 통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며 때에 맞는 필요를 채워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나타내 보이시기에 시인은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방패 되신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켜 주시며,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주의 전에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거하신 곳을 사모하는 것이며, 그분 앞에 정직하게 해하는 것이며,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계신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주의 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그분 앞에 나아가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시편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Written by 허영진